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20년 12월 15일 | 총권 53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다락골길 164-24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되려면!

‘북페이백(book payback·책값반환제)’이란 시민이 공간을 구입 해 읽은 뒤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받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 울산시, 남원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한 제도다. 시민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동네 중소서점도 살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득보다 실이 커 보인다. 시민이 읽은 뒤 반납한 책들이 대체로 한 번 보고 버리는 책들이라서 효용이 크게 떨어졌다니 말이다. 이를 방지하면 심하게 말하면 몇 년 뒤에는 도서관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많은 도시에서 도입한 희망도서바로대출제가 있다. 이 제도는 도서관에 없는 책을 빌리고 싶을 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지정서점에서 책을 대여, 반납하는 제도다. 지정서점은 대여했던 도서를 도서관으로 납품하고, 비용은 도서관의 도서관구입 예산에서 지불된다. 사전 신청을 통해 도서관의 사서와 협의를 하니 북페이백에 비해 폐해야 적겠지만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하려다 보면 사서의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종도서관이라는 제도도 문제가 없지 않다. 양서를 선정해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니 좋은 취지 같지만 도서관에서는 절반 이상의 책이 먼지만 쓰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다고 한다. 세종도서관은 출판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애초부터 도서관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았다. 도서관에는 아무 책이나 갖춰놓으면 그만인 곳은 아니다.

이들 제도는 도서관의 존재감을 지우는 정책들이다. 도서관은 도서관다운야 한다. 도서관에는 되도록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서가 비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서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만 한다. 최근에 서브컬처가 대세가 되면서 문학성이나 예

술성이 담보되지 않는 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나 잔인하거나 흥미 위주의 장르소설을 초등학교생들이 너무 신청해서 사서들이 고충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 SF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은 10여 권 출간되었다. 그러나 로맨스를 분석하는 책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모두를 공감하게 만드는 논의는 거의 접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장르문학에 대한 가치 평가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에게 주도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시민들의 관심이 다양해지고 있으니 시민들과 사서들의 갈등이 점차 고조될 것 같다. 도서관구입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도서관이 시민들이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워진 정책당국에서는 도서관구입 예산을 깎으려 드니 잘못하다가는 도서관의 수서기능이 마비될 지도 모른다.

공공도서관은 그동안 꾸준히 늘어났다. 해마다 수십 개의 도서관이 새로 개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운영 능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도서관의 운영을 전문 사서에게 맡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아직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대부분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의 입김에 놀아나다 보니 한심한 정책들이 도입된 것이 아닐까? 학교도서관에는 반드시 사서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공공도서관에서는 자율권을 갖고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책을 큐레이션할 줄 아는 사서들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도서관이 도서관다운 수 있다.

한기호 | 학교도서관저널 발행인/학도넷 고문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의정부 독서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단이 권하는 책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여주 토닥토닥도서관 관장 김동헌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창성중학교 “四季를 담은 도서관” 글빛나라

- 김지순(성남 창성중학교 사서)

통합 이렇게 진행되다

우리학교 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3개 학교가 통합한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신축 학교도서관이다. 창곡중학교, 창곡여자중학교, 영성여자중학교 3개교가 지역사회 현대화의 일환으로 2017년 통합하여 전교생 500명 창성중학교로 탄생 되었다.

1차 이사는 창곡여중이 폐교할 때 하고, 2차는 2017년 영성여중에서 2년간 전세 살 때 하고, 3차는 2019년 신축학교가 완공되어 정착하게 될 때 했다. 결국 도서관 이사짐을 세 번 싸고, 풀고 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 다는데, 도서관 이사 3번 하니 이사 전문업체 못지않게 도사가 되는 것 같다^^

여기에서 잠깐!!

창곡여자중학교를 폐교할 때 그 많은 세 학교의 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우선 최신간 중심으로 각 학교 총 장서 1만 권만 남기고 모두 폐기처리 결정을 하면서 학교, 기관, 마을도서관, 남북청소년학교, 시인, 소설가 등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 나누었다. 모두 행복한 얼굴로 책을 받아 갔다. 이제 추억이 되었지만 통합 첫해는 남, 녀 합반에 대한 학부모님의 염려로 분반을 했다가 그 다음 해는 남녀 합반으로 운영했는데 효과는 합반이 훨씬 좋았다. 그 후 남학생, 여학생 합반으로 학급 운영을 하게 되었고,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있다. 역시 남녀는 함께 챙겨주는 세상이 아름답다~~^^

四季를 담은 도서관에서 꿈을 펼치다

2019년 3월 신축교 도서관으로 이사를 하니 도서관 면적이 460㎡(교실 6칸)로 무척 넓었다. 축구장처럼 넓은 허허 벌판을 과연 어떻게 기획해야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다. 매일 쓸고, 닦기를 반복하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주변의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관중 별 도서관 견학을 하게 되었다. 그 도서관의 전체적인 공간구성의 특색을 비롯하여 서가, 책상,

북트럭, 색감, 조명, 바닥 소재 등 소소한 물품을 꼼꼼히 사진도 찍고, 장단점을 메모하며 참고했다. 그 후 결국 4계절로 공간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각 공간별 이름을 마치 작명소가 된 듯 짓고, 하나씩 진행했다.

도서관 입구 “꿈을 봄” 코너

진로도서를 전시하고, 꿈을 키우는 무한 꿈터 및 브라우징 코너, 신간도서를 테마 별 도서코너로 만들었다. 또 대출 반납대 근처에 새로 들어온 책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하여 오가는 학생들의 눈길을 멈출 수 있게 하고, 요즘 잘 빌려가는 책도 목록을 뽑아 꽂아두었다. 신간 코너에서는 학생들이 화제작으로 즐겨보는 책이 있어서 인기가 있다.

서쪽의 “책을 여름” 코너

이곳은 6단 4연 서가 10개가 있고, 000~900대까지 총 20,959권(처음 도서관을 합치며 1만여 권의 장서를 남겼는데 도서구입예산지원이 자꾸 지원되면서 신간 중심의 책들이 많이 확충되었다.)의 장서가 책 숲처럼 전시되어 있다. 벽면에는 교과연계 추천도서, 만화, 이슈&이슈, 성장소설, 도서부 추천도서 등이 전시되어 있고, 창가테이블이 있어서 호젓하게 나만의 정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선생님들도 집중하기 좋다고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서로 차지하려고 달려오기도 하는 곳이다.

북쪽의 “익는 가을” 코너

이곳은 모둠학습 및 독서토론 공간으로 수업전용 공간이다. 별도로 출입문이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독서토론수업, 영화수업, 강사초빙 독서문화 수업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는 DVD도 1,099점이 있어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또 정보검색대 6대가 준비되어 진로, 역사, 과학 등 모둠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동식 TV와 스크린이 있어

서 북콘서트 할 때는 TV를 장소에 따라 이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섬의 겨울” 온돌 코너

좌탁이 두 개 놓여있고, 그림책 및 시집 콜콜 시집들이 있어서 힐링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단골손님이 줄을 서는 공간이 되었고, 도란도란 그림책, 시를 읽어줄 수 있어서 학생들도, 나도 좋아하는 공간이다. 계단참을 두어 이곳이 무대가 되기도 해서 북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기획하였다. 매년 선생님과 학생이 이곳에서 사제동행 북콘서트를 하고 있다. 선생님, 학생이 노래를 부르고, 시도 읊고, 책소개도 하고, 연말에 진행하는데 이때는 도서관이 그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곤 한다. 그 외 소개할 만한 공간은 “글 따라, 꿈따라 필사” 코너가 있다. 이곳은 인문학 도서를 한줄 한줄 따라 쓰며 인성을 함양하고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곳이다. 또 중학생이 꼭 알면 좋은 문인들의 이야기와 서평 및 작가초대 소감, 애들이 이 책 읽어봤니?? 등 책을 표현하는 코너가 있다.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어요

- 꾸준한 독서를 권장하기 위한 “꿈찾는 독서기차여행” 독서를 여행처럼 생각하고 한 페이지씩 읽도록 기획하여 기차모양을 300쪽부터 ~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독서여행을 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서 활용한다. 또 한학기 한권읽기도 학급에 배부하여 진행하고 있다.
- 교과연계 프로그램으로 한학기 한권읽기와 국어시간에 시집을 읽고 시화캘리를 진행한 후 전시도 한다. 10월 도서관문화제 기간에는 북콘서트를 진행하여 호응이 좋았고, 12월에는 샌드아트 공연과 체험을 했다.
- 도서관에서 주는 교내 수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반기 6월은 위인전을 읽고 진행하는 독서포어대회가 있고, 하반기 11월은 나만의 독서이야기 대회가 있다.
-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는 토요일인문학 문학관기행을 매년 가정통신문을 내보내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고 진행했다. 사전 독서를 통하여 독서퀴즈를 준비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즐겁게 보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소수인원으로 책을 소개하는 북트레일러 제작, 독서명언집 만들기, 북아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총 33차시 도서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더욱 풍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남한산성에 오시면 우리 학교도서관에 꼭 한번 들러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학교도서관에서 만나는 청소년들

- 이은옥(경기 광주 곤지암고등학교 사서교사)



곤지암고등학교에서 사서교사로 2년째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사서일지'라는 제목으로 현재 47번째까지 연재하고 있다. 내놓기 부끄러운 글이지만 사서일지를 계속 써내려가다 보니 학생들이 도움 방법들이 자꾸만 생겨났다. 학급교사가 아닌 도서관 사서교사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아이들을 찬찬히 관찰하며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이니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찾아드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꿈을 찾아 가꿔주는 길이 생겼다. 나도 함께 성장하는 보람이 된다.

사서일지 25 - "쌤, 이제 뭐해요?"

점심시간마다 급식도 안 먹고 나타나는 모이는 항상 과일꾸러미를 보물단지처럼 품에 안고 나타나서는 오늘은 또 그려야 되는 것은 없냐면서 그림을 내놓는다.

매일매일의 기분을 캐릭터 표정으로 그려오는 재미에 푹 빠진 것 같다. 주구장창 캐릭터만 그린다. 스토리가 있는 일기처럼 그려왔더니 7간에 캐릭터 하나씩 표정을 담아 그려온다. 내일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보냈을까 궁금하게 만든다.

바인더와 종이까지 계속 챙겨주면서 일기 쓰는 것처럼 매일 그려보라고 했더니 그리하겠단다. 그리다보면 점점 실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격려를 해주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겠죠. 열심히 그럴거예요."라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표정을 짓는다. 참, 별스런 학생을 만난 듯하다.

어제는 하교 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코로나19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만화를 그렸단다. 잘 못그리는 데 교지에 어떻게 내냐며 무뚝뚝한 표정으로 되묻는다.

"와, 집에 가자마자 그렸어?"

"아니요. 좀 쉬었다가 그리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었던거고요.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맘에 안 들어?"

"네. 캐릭터만 그리다가 스토리 만화를 그리려니까 잘못그리겠어요."

"ㅎㅎ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려보든지~~"

"색칠까지 하려니까 시간 엄청 걸렸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보이는데? 계속 그려보면 잘 그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누구지? 사서쌤이잖아. 책을 빼놓고 우리가 그림 이야기만 하면 안되지? 책 반납하던데 다 읽은거야? 독후감 그림은 어디 있어?"

"어려워요. 다 읽었는데 생각은 해두었어요. 오늘 가서 그럴게요."

책 읽어본 적이 없다는 모이는 슬금슬금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도록 했더니 결국은 좋아하는 캐릭터로 독후감 쓰라는 유도 심문에 넘어간 꼴이 된 셈이다. 그럴

줄 몰랐지! ㅎㅎ

다음 주부터 2주간 수능시험 때문에 온라인수업이라서 당분간 학교에 못 오면 검사도 못 받으니 심심하겠다며 또 한 권의 책을 대출해주었다. 1장만 읽고 8권의 스토리보드에 독후그림을 그려오라고 주문했다.

"어려운데요. 생각 많이 해야하거든요!"

모의고사는 다 찍었다며 공부는 재미없다는 모이에게 어떤 과목이 그래도 좋냐고 물었다. 국어와 과학은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생태환경도서를 대출해주었다. 꿈에도 생각못했던 책을 읽게 생겼으니 이 학생은 나한테 속았다고 할까? 그럴 줄 몰랐겠지!

사서일지 26 - 담배 끊었어요

"쌤, 영 나왔어요!"

"뭘 소리니?"

"니코틴지수가 0이에요!"

"너, 담배 피웠니? 언제부터?"

"저번 화요일부터 안 피웠어요!"

"오, 그래? 잘했다. 모델할 사람이 좋은 향기를 풍겨가지!"

"네!"

오일째 나 홀로 복학생 한 명을 담당한 보람을 느낀 하루, 좋은 소식을 들었다.

너무 바빠서 말을 교사가 없다면서 데려온 자퇴생 남학생은 그렇게 5일 동안 도서관에서 나와 함께 학업태도와 진로를 의논했다.

지난 주 화요일은 복학생을 대면하는 날, 지나가는 말로 자퇴하고 뭐 하며 지냈느냐고 물었었다. 학기 중간에 자퇴해버리면 복학 시기가 애매해서 여러가지가 복잡해진다며 9월 학기 초에 복학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봤다.

부모님은 물론 친구들이 패션 핏이 좋다며 옷을 잘 입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피팅모델을 하고 싶어서 자퇴를 했단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실증된 셈이다. 부모, 교사, 벗들의 말 한 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가름하게 만들다니 교사로서의 삶을 산지 2년 제인 나로선 새겨들어야 할 말인 셈이다. 학생의 향로를 바꾸게 하는 책임있는 말을 많이 훈련받아야겠다. 담배는 중학교 때 씨름선수를 하는 중에 선배한테 맞으면서 배웠다고. 운동선수들의 뒷면을 보게 되는 슝슝함.

선배한테 마구잡이로 맞아서 학폭으로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기도 했다고. 아마도 고등학교에 와서도 담배 피우다가 걸린 적이 있나 보다. 옆에서 이 학생을 소개하던 교무쌤이 학교 다닐 때 괜찮은 학생이었다며 엄마가 교사에게 잘 지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다. 작년처럼 두 명이 온 것도 아니고 한 명이니 다행이다 싶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담배도 피냐고 물었었다.

"담배와 커피 중에서 커피 끊는 사람이 더 독종이라더라. 나는 그 좋았던 커피를 끊은지 5년째인데 담배 피는 너는 아닌가 보다"라며 웃은 적이 있다. 그때 그 학생의 표정이 우물쭈물 자신있게 대답하지 않았다. 담배를 배웠으니 끊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흘러보냈다. 이때부터였다고. 학교에 복학하려면 이전의 흐트러진 생활태도를 바꾸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훈련도 해야 하니 독서도 해보자고 첫인사를 나눴다.

그렇게 5번, 만남의 시간은 자기계발서 한 권, 패션모델 되는 과정을 쓴 책 한 권, 블로그 만드는 방법에 관한 책 한 권 등 3권의 책을 대출하여 읽고 필사하고 느낌과 적용할 행동에 대해 노트를 하게 했다. 처음으로 책을 읽고 글씨까지 쓰게 되었으니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이다.

또한 심진분류표 보는 법, 반납한 책들을 서가에 청구기호 순으로 꽂는 법,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서가에서 찾는 법을 직접 하도록 실습시켰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서가에 꽂지도 못하고 서성거릴 때마다 서너 번 가르쳐주니 잘도 한다. "역시 세상살이 좀 하고 오더니 센스가 있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자퇴했다가 첫날부터 10만원받고 새벽까지 일하다가 되돌아오며 시간을 계산해보니 후회가 되었다. "알아보고 자퇴를 하지 학교를 그만두고 나니 그게 보이더냐?"

참 대책없이 1년을 보내버린 셈이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음을 겪었으니 배운 게 많았는지 복학을 하면서 담배부터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나보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마지막수업으로는 블로그 만들기 실습을 했다. 먼저 제목부터 정했다. 몇 번 수정해서 이름 걸고 패션이야기를 써보자고 했다. "민규의 패션모델이야기"라고 제목을 정하고 책에서 배운 패션 등 서너 개의 서브메뉴를 만들고 5일간 읽고 쓴 책과 노트를 사진 찍어서 올렸다. 링크거는 법을 알려달라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갔다. 인터넷서점에서 읽은 책을 찾아 주소를 복사해서 게시판에 링크거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서평을 복사해서 붙이고 자신이 한 노트사진을 삽입하는 식으로 세 권의 책을 올려놓았다.

네가 옷을 잘 입는다고 했으니 너의 모습을 찍어서 어떤 옷을 입었고 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해 쓰는 식으로 블로그를 채워가자고 했다. "쌤이 수시로 보고 코멘트할게"라며 도전욕구를 부추겼다.

끝날 때의 기분!

학생의 표정이 첫날보다 훨씬 맑아졌다.

"너는 학교에서 나를 만난 것을 복으로 알아라!"

"네. 그런 것 같아요."

ㅎㅎ

학교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이 학생이 얼마나 각오가 되어있을까마는 즐거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도록 도와준 것 같아 나도 보람을 느꼈다.

이후의 시간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학생은 도서관이 익숙한 곳이 될 것이고 사서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꿈이 영어어가도록 이끌어주었다고 기억해주는 것으로 만족하련다.

의정부 독서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단이 권하는 책

독서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단은 의정부교육지원청 소속의 초·중·고 교사, 사서(교사)로 재직하면서 의정부 교육공동체의 독서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의 모임입니다. 지원단은 독서기반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방법을 연구하고, 실천 및 나눔 방법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 인문학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천 도서는 「2020년 나에게 최고의 한 권」이라는 주제로 각자가 느끼는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공유하였습니다. 그림책, 청소년 도서, 성인 도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소개합니다



초조함 공장

홍홍 글 | 정현진 그림 | 씨드북 | 2020

초조함과 여유로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공장의 딱딱함과 초조함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여유로움과 초조함 두 가지 사이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왔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이들에게 여유로움과 초조함 중에서 초조함을 선택하게끔 수많은 우영이들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 김서혜(송산초등학교)



풀피리 부는 도깨비, 풀개비

김종근 글 | 김용현 그림 | 자유문고 | 2019

자연 감성 놀이 풀피리를 좋아하는 풀개비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전래 이야기와 전통악기 풀피리를 접할 수 있으며, 그림책 장면 속에는 풀피리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영문 부록이 실려 있고, 풀피리 연주 방법소개와 함께 인조 나뭇잎을 제공하여 직접 풀피리를 불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자연 정서 함양과 어릴 적 추억을 되살려 주는 자연 정서 그림책입니다.

- 김종근(신곡초등학교)



초코곰과 젤리곰

안 케비 글·그림 | 봄별 | 2020

이 책은 세계 인권운동의 발단이 된 '로자 파크스' 사건에서 모티프를 따왔습니다. 버스 앞쪽 백인 좌석에 앉아 끝까지 흑인 좌석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까지 받은 로자는 버스에 나란히 앉을 수 없는 초코곰과 젤리곰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가 사랑과

젤리 등의 밝고 순수한 이미 지로 그려지면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과거처럼 달콤해진다'는 메시지가 선명하고 쉽게 표현되었습니다.

- 박현주(의정부청룡초등학교)



뭔가 특별한 아저씨

진수경 글·그림 | 천개의바람 | 2018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다정 아저씨는 긴 머리 때문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다정씨네 회사 사장님은 긴 머리의 다정씨에게 늘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규율을 지키라고 하는 분이시죠. '머리가 긴 아저씨는 이상한가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남을 위해 어떤 기부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혹은 할 수 있을지? 를 생각해보고,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박현주(의정부청룡초등학교)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꽃님 글 | 문학동네 | 2018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로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판타지를 가미한 소설입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과거의 시간여행을 꿈꾸는데 주인공 아이는 과거의 자신과 같은 이름의 소녀와 시간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비밀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춰진 두 소녀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고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 윤수현(회룡중학교)

외로움의 철학

라르스 스펜젠 글 | 이세진 옮김 | 형미 | 2019

인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아니 외로움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성찰하고 있으십니까? 이 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소외감이라는 외줄 위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얼마나 외로움을 도외시키고 있었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은 외로움에서 비롯되었기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독해지길 원하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이광영(솔미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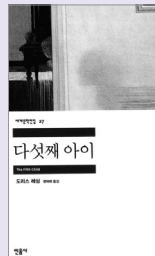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현 글·그림 | 놀다산북스 | 2020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로 유명한 김수현 작가의 4년 만의 신작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끊임없이 상처받고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따뜻한 공감과 시원한 솔루션을 술술 읽히는 글과 재치 있는 그림으로 전달합니다. 특히 나다움을 지키면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장아름(삼현초등학교)



다섯째 아이

도리스 레싱 글 | 정덕애 옮김 | 민음사 | 1999

1960년대 데이비드와 헤리엇은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자신의 이상적 가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섯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장애를 지닌 다섯째 '벤'은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조롱하며 떠나게 됩니다.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모성과 부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장애에 대한 편견은 없는 걸까요? 등 다양한 질문을 주는 책입니다.

- 장연희(부용고등학교)

몽두 1·2

국무영글·그림 | 각 권 16,000원

열다섯의 거대한 우주를 뚫고 나아가는 '몽두' 동두희의 좌충우돌 로맨스 성장 만화!

십 대의 삶은 왜인지 격렬하다. 십 대의 나는 나다움의 가장 최초임이 분명할 것이다.

- 윤태호(만화가)

'만화란 정말 근사한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을 『몽두』와 같은 작품을 만날 때마다 생각한다.

- 연상호(영화감독)

홈페이지 bir.co.kr 비롱소

내가 권하는 책



자연에서 노는 아이

고무신, 구지원 글/정다운 그림
고래벳속/95쪽/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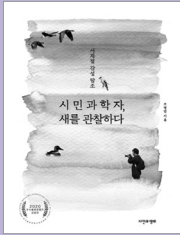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이 가장 먼 길이라는데 자기를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삶의 밑천 '놀이'라는 '책'을 만났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재료로 놀면서 세상을 배우며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놀이 교과서다. 바람 만지는 아이, 흙 옮기는 아이, 물 만난 아이, 불 피우는 아이, 나무가 된 아이, 돌 쌓는 아이로 차례가 이루어져 하나의 챗터가 고무신이 날리는 놀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아이들의 생생한 놀이현장, 선생님이 도와주세요와 구지원의 생각놀이와 창의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구성이다.

고무신이 날리는 놀이 이야기에는 바람, 흙, 물, 불, 돌을 대하는 놀이 노동자 고무신 선생님의 태도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읽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이들의 생생한 놀이에는 실제 다양한 놀이를 하는 사진을 넣고 어떻게 놀았는지 놀이 방법과 아이들과의 놀이 순간을 생생하게 글로 표현하고 있으며 놀이에 쓰이는 재료, 만들기 순서도 친절하게 알려준다.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어른에게 좋은 길잡이가 된다. 컵 비행접시, 봉지연 날리기, 종이 바람개비 만들어 붙여오는 바람에 마주 서기, 실팽이 돌리기, 황토로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흙 케이크 만들기, 물속에서 이어 달리기, 물 폭탄 만들기, 물수제비 뜨기, 파이어 스틱으로 불붙이기, 돋보기로 햇빛 모아 불붙이기, 간식 구워 먹기, 나무 이야기 상상하기, 도토리 발견하기, 움막 짓기, 돌탑 쌓기, 공기놀이하기, 돌에 숨어 있는 이야기 찾기, 돌 꾸미기 등 어른들이 어릴 때 한 번쯤 해 봤을 놀이들로 기억을 되살려 준다.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코너는 놀이할 때 주의할 점, 재료와 도구 준비, 놀이와 연결되는 예술활동을 알려주어 놀이를 확장 시켜준다. 아이들보다 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싶은 구지원선생님의 놀이에 관한 폭넓은 질문으로 마무리하는 이 책의 마지막 책장을 넘길 때 쫓으면 얼른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놀고 싶어질 것이다.

어렸을 때 잘 놀았던 행복한 기억이 아이들을 잘 살아가게 하는 삶의 힘이 될 거라 여긴다.

- 강정미(뽕과그림책협동조합)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

조병범 글/자연과생태
218쪽/2020.10

이 책은 어느 날 출근길, 직장 근처 습지에서 흰뺨검둥오리 가족을 만나면서 시작된 가볍고 작은 생명, 새에 관한 기록입니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계절이 바뀌면서 이 땅을 다녀가는 새들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비단 새들의 흔적만이 아니에요. 새를 통해 만난 그리움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쫄쫄쫄 소리를 내고 금방 고요 속으로 빠져들며 소나무랑 한 몸이 된 소쩍새가 엄마의 따순 둥을 그렇게 합니다.

도감이 건조하게 새를 만나는 지점이라면 이 책은 글쓴이의 마음과 눈을 통해 새를 만나는 따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따뜻함이 담백 담긴 눈이고 마음입니다. 안쓰러운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때론 망가져 가는 환경을 걱정하는 눈빛 역시 진하게 배어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글쓴이와 함께 습지를 돌고 공원을 바닷가를 걸으며 천천히 새를 관찰하고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미처 몰랐던 새 이야기를 듣다 어느 순간 눈이 젖어들기도 했지요. 때론 봄날이 어서 왔으면 싶으리만치 꽤 설레기도 합니다. '사라사락 꽃잎인지 새인지 모를' 작은동박새를 만나고픈 마음 때문이에요. 이제 새를 만난다면 적어도 글쓴이의 마음 한 자락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고 자꾸 봐야 예쁘다지요? 어느 한 장소에서든 새를 보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때론 아르게 지켜보고 때론 아름답게 바라본 글쓴이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마지막 책장을 덮었습니다. 이 땅의 텃새도 때가 되면 이 땅을 오가는 철새도 모두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늘 함께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다양하고 어여쁜 새들이 우리 곁에 머물기도 하고 잠시 들렀다 가기도 한다는 사실이 경이롭기만 합니다. 새들 마다마다의 인연을 기록해놓은 글쓴이의 관찰이 몽클합니다. 새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한 존재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하나가 열리는 일이라는 것도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가요, 새를 본다는 것은!

- 최원형(생태환경운동가/착한 소비는 없다(철수와영희) 저자)



민주주의자들의 교실

1. 민주시민교육의 철학
2.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사아카데미 글
마북/304쪽/2020.10

이 책은 25명의 초·중·고 교사, 교육행평가, 사회과학자가 100시간 동안 민주시민교육에 관해 함께 공부한 후, 토론하며 더불어 쓴 책이다. 현장 교사들의 고민과 열정, 그리고 일관된 철학이 담긴, 민주시민교육을 '마중'하는 책이다.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있으나 실행이 막막한 초·중·고교 현장 교사들, 혹은 이미 시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점검하고 발전시키고픈 교사와 교육활동가들에게 현장의 지침서로 적합하다. 우리 교육의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권한다.

100시간은 긴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자의 교실』이라는 제목이 과연 맞는 말인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교실에서 이루어지지는? 하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다. 처음부터 제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원고를 마감하고 2차, 3차 원고를 다듬으면서도 제목에 대한 찬반 토론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광장에선 민주주의가 여러 분야에서 목소리 높이지만 학생들도 교실에서 아니 학교에서 늘상 들어오고 생활해봐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고민하지 않을까? 하여 교사아카데미에 참여하였다.

특히 도서관이라는 장은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에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100시간을 공부하였다고 하여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반평생을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살아오며 고민한 것들이 녹아 응축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책과 살아 숨 쉬는 학생들의 대화는 학교에서 민주주의자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회라고 본다. 누구나 각자의 생각을 갖고 책 저자와 만나 길을 찾을 수 있는 곳. 도서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공간이기에 많은 학생, 교사들이 찾아 달라 손내미는 책들의 숨소리를 들길 바라는 마음이다.

- 김은신(인천 만성중학교 사서교사)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과 책

- 김동현(여주 토닥토닥그림책도서관 운영/학도넷 운영진)

여는 글

2020 청소년 책의 해 5차 포럼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과 책'은 여주시 청소년들과 진행하였다. 시민단체 '여주사람들' 인문동아리 '싸뎡'과 '나뎡'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참여로 여주시 청소년 포럼 실행위원을 만들고 여주시 청소년들 100명에게 설문을 받았다. 어른들이 궁금해 하는 청소년 독서에 대한 질문이 뼈대가 되었고, 10대 시민들이 답을 하다가 질문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걱정하였으며 책 읽는 청소년들을 '책따'라고 부른다는 우려스러운 표현도 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과 책'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여보는 시간이었다.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 독서환경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여주시 청소년 100명이 담백하게 답을 했다. 청소년들이 설문 주제이고 능동적 참여로 답을 하는 청소년을 전제로 설문을 받았다. 질문에 응답한 청소년들은 도서부원이나 책동아리 모임의 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임을 밝혀둔다.

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균형, 비판적 사고의 수준 등은 '나이'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중등과 고등을 구분하지 않았다. 청소년이 문항을 만들 때도 중등과 고등이 함께 동등하게 참여했다.

<표1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여주시 10대 시민 100명
조사방법	'청소년과 책' 실행위원 소속 학교 8개 중등학교 단톡방에 공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구글폼으로 작성한 설문지의 링크에 접속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음 (100여 명 참여), 오프라인 참여는 설문지에 직접 표기하여 참여하였음(50여 명).
표본규모	질문 25개(이번 원고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 학교도서관 밀집관련 설문 8개를 정리했다.)
표본추출	무작위 추출
자료분석	구글폼으로 취합된 자료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음.
조사기간	2020년 11월 10일~11월 2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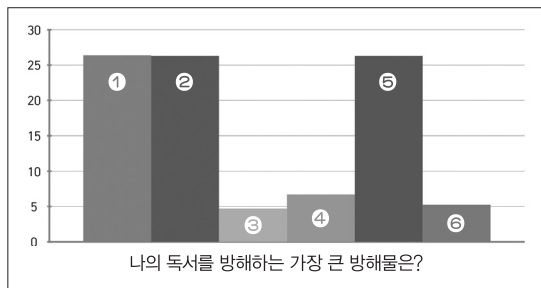
1. '나에게 책은 ○○○이다'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매우 다양한 답을 했다.

'나에게 책이란 ○○○이다'
 텀블러/ 장난감/ 돋보기/ 선물/ 썬터/ 정보/ 지식/ 쉬는 시간/ 출석/ 행복/ 꾸러미/ 영화/ 아이스크림/ 놀이터/ 생각/ 즐거움/ 새로운 세계/ 읽고 싶지 않았지만 읽으면 재밌는 것/가깝지만 먼 것/ 좋은 건 알지만 읽기는 귀찮은 것/ 밥/ 침/ 소풍/ 여행/ 문/ 시장/ 눈/ 보석/ 마법/ 손전등/ 창고

청소년들은 너무너무 와 닿는 단어들, 공감하는 키워드로 답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책을 싫어하고 따분해 할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대답한 키워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도서관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1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책을 좋아하는 청소년도 있지'가 아니라 '청소년과 책은 함께 있지'로 기억해야겠다. 청소년들 표현대로 '책이 좋은 건 알지만 귀찮아서', '읽고 싶지 않지만 읽으면 재미있는 것'이 책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겠다.

2. 나의 독서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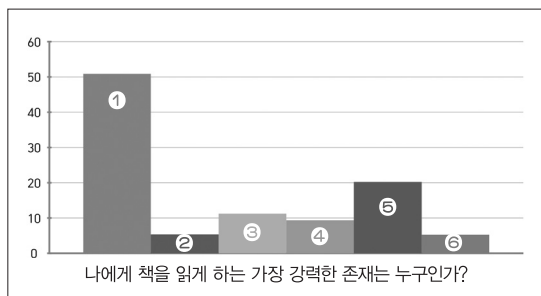
- ① sns, 웹툰, 게임 등의 방해요소가 많은 핸드폰 (26.38%)
 - ② 시간적 여유가 없다. → 학원, 학교 숙제 등으로 인한 (26.29%)
 - ③ 친구와 보내는 시간 (4.72%)
 - ④ 학교나 집 등의 생활 소음 (6.72%)
 - ⑤ 제출 기간 안에 독서 과제를 해야 하는 압박감 (26.30%)
 - ⑥ 원하는 책이 없는 도서관 (5.26%)
- 기타 4.33%의 내용 중 (책을 읽지 않는다/ 나 자신 / 독서 의지 전혀 없음)



'내가 독서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sns, 웹툰보기, 게임, 스마트폰이 1등은 했지만 50% 이상 차지한 응답 중 [학교, 학원 숙제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제출기간 안에 독서 과제를 해야 하는 압박감이 나의 독서를 방해한다고 응답한 내용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책이 없는 도서관도 시선을 붙잡는다.

3. 나에게 책을 읽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누구인가?

- ① 나 (50.88%)
- ② 친구 또는 선배 (5.36%)
- ③ sns (11.2%)
- ④ 부모님 (9.36%)
- ⑤ 선생님 (20.2%)
- ⑥ 기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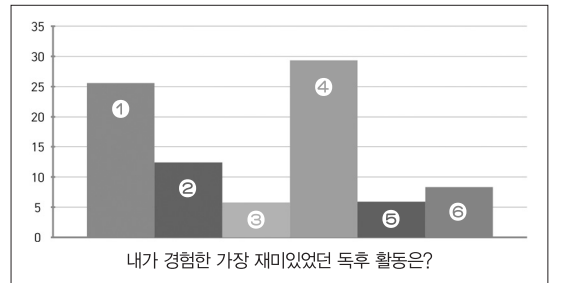


응답자 50% 이상 청소년들은 자기결정권을 갖고 독

서를 한다고 답했다.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을 때 읽는다는 대답에 '자발적 독서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응답 내용 중 주목할 것은 선생님의 존재가 나에게 책을 읽게 하는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에 도서관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입장에서 '청소년과 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다.

4. 내가 경험한 가장 재미있었던 독후 활동은?

- ① 책 내용을 토대로 자유로운 대화 형식의 토론 (25.58%)
 - ②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하기 (ppt소개, 책 광고 제작 등/ 12.41%)
 - ③ 책 속의 내용을 재구성하기 (연극, 영상, 그림책 등/ 5.75%)
 - ④ 책을 읽고 같은 주제의 창작물 감상하기 (노래, 소설, 뮤지컬, 영화 등/ 29.36%)
 - ⑤ 독서퀴즈대회 참여하기 (5.91%)
 - ⑥ 책 읽고 여행하기 (12.66%)
- 기타 (책 읽고 뒷 내용 상상하기/ 머릿속에서 책의 내용을 정리하기/ 책을 읽고 감성을 즐기는 것/ 책 읽고 상황에 맞게 그림 그리기/ 그냥 혼자 읽는 거 등/ 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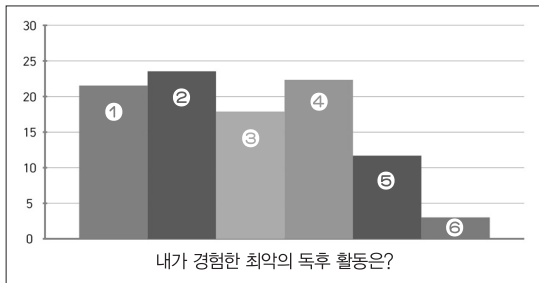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책 읽고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 활동에 25.58% 응답한 것에 조금 놀랐다. 설문 문항을 만들 때 청소년들은 '자유로운 형식'이라는 표현을 꼭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디베이트 방식'의 토론이 아니라 '책수다', '비경쟁독서토론' 등 내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유롭게 토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책 읽고 토론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형식의 토론 대회 등을 싫어한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었다. 또 하나는 내가 읽은 책을 내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소개하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흥미로운 것은 '책 읽고 여행하고 싶어 한다.'는 응답을 볼 때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좀 더 기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다면 10대 시민들과 책여행을 함께 기획하고 떠나고 싶다.

5. 내가 경험한 최악의 독후 활동은?

- ① 누군가가 정해주는 책 억지로 읽기 (21.55%)
- ② 책 읽고 형식적이고 딱딱한 보고서 쓰기 (23.53%)
- ③ 내가 원하지 않는 책 필수하기 (17.86%)
- ④ 점수로 평가되는(수행평가) 독후활동 (2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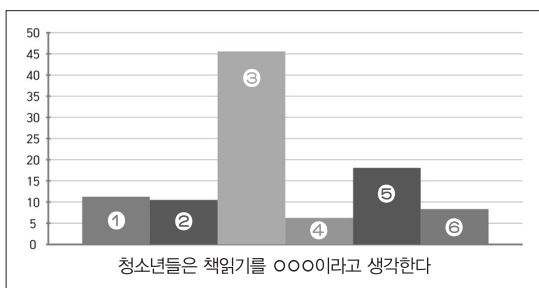
- ⑤ 책 읽고 찬반 토론하기 (11.7%)
- ⑥ 기타 (책 속 내용 재구성/ 선생님 강의 듣기 등 / 3.0%)



5번 문항 응답 내용에서 청소년들은 자발적인 독서 활동을 좋아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책을 읽게 하고 딱딱한 형식의 보고서를 쓰게 하며 그것을 점수화 한다'면 정말 싫을 것 같다. 아니 책이 싫어질 것 같다. 더구나 원하지 않는 책을 필사하라고 한다면 책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평생 책을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최악의 독후활동 경험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여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6. 청소년들은 책 읽기를 OOO 이라고 생각한다.

- ① 조용하고 내성적인 애들이 하는 것 (11.25%)
- ② 선생님들이 과제로 내주시는 것 (10.5%)
- ③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 (45.58%)
- ④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것 (6.25%)
- ⑤ 쉬는 시간에 하는 취미생활 (18.08%)
- ⑥ 기타 (8.34%)
 - 자기성장
 - 자기가 읽고 싶을 때 읽는 것
 -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활동
 - 가상의 모험을 떠나는 것
 -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것
 - 내가 직접 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해보는 수단
 - 예술 활동을 위한 영감을 얻는 필수코스
 -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지식의 유연성을 늘리는 길
 - 평생 과제



청소년들은 놀랍게도 책읽기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책 읽는 행위 자체로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번 문항에서 내가 책을 읽게 만드는 강력한 존재로 20% 이상이 선생님이라는 응답을 했다. 6번 문항에서 청소년에게 책읽기는 선생님이 과제

로 내주시는 것이라고 답한 것을 볼 때 청소년의 책 읽기에 선생님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과제로서 책읽기의 부담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듯하다.

7. 선생님들은 청소년들에게 책 읽기를 권할 때 OOO이라고 말한다.

- ① 대학 입시를 위해 (33.91%)
- ② 나중에 크면 읽을 시간이 없다. (6.41%)
- ③ 타인의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9.25%)
- ④ 지금 읽어도 나중에 다 도움이 된다. (45.27%)
- ⑤ 교육청에서 책 많이 읽으라고 해서 (3.83%)
- ⑥ 기타 (지식이 풍부해진다./ 언어와 언행 등 배울 수 있다. 등/ 1.33%)

8. 부모님은 내가 책을 읽을 때 OOO 이라고 말한다.

- ① 진로에 도움이 되는 거 많이 읽고 소설은 대학에 입학해서 나중에 읽어 (17.5%)
- ② 지금 아니면 나중에 읽을 시간 없어 (15%)
- ③ 책 읽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해 (14.5%)
- ④ 별로 관심 없음 (33.5%)
- ⑤ 기타 (19.5%)
 - 같이 읽자고 하신다. (1.0%)
 - 재밌어? (1.0%)
 - 좋아하신다. (2.0%)
 - 자주 읽어서 좋아해 주심.(1.0%)
 - 다른 사람이 일평생에 걸쳐 얻은 지혜를 책 하나로 추려낸 거니까 읽으면 한 사람 일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거란다. (1.0%)
 - 잘 읽어 (1.0%)
 - 무슨 책이야? 재밌어? (1.0%)
 - 어떤 종류의 책이든 다 좋은 책이다. (1.0%)
 - 책은 평생 읽는 거야 (1.0%)
 - 칭찬해주시면서 다양한 종류의 책 읽으라고 권유 (1.0%)
 - 많이 읽으면 지식이 늘어 (1.0%)
 - 멋있네 (1.0%)
 - 무슨 일이나고 하신다. (2.0%)
 - 훌륭하다 우리아들. 잘했어. 대단하네 우리아들. (1.0%)
 - 집에 책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읽게 하셨음. (1.0%)
 - 책도 다 읽네 (1.0%)
 - 공부를 해 (1.0%)

※ 7, 8번 문항을 보면 너무 현실적인 이유로 책읽기를 권하는 어른들과 아예 관심조차 두지않는 어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다.

닫는 글

설문 문항 중 청소년이 출판사에 바라는 점, 청소년이 말하는 멋진 독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마

무리 하려고 한다. 먼저 출판사에 바라는 점을 정리했다.

[탐험? 모험? 같은 여행을 하고 싶게 만드는 책/머리를 식힐 수는 있는데 유치하지는 않은 책/ 책을 재미있게 보는 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업시간에 노는 법/ 만화는 아니지만 소설에 그림이 많은 책/ 표지부터 재밌어 보이는 책/ 도입부가 흥미로운 책/ 주인공에 빙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책/ 한 달 안에 쉽게 키 10센티 크는 방법 등] 출판사 관계자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독서환경, 북컬렉션을 잘해놓은 동네서점이 생기면 자주 책을 접할 것 같다고 하며 학교도서관도 카페처럼 음악이 흐르고 폭신한 의자에서 반쯤 누운 자세로 책을 읽고 차도 마시고 싶다 말했다. 그리고 우리동네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 권장도서 목록을 만들 때 꼭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물어 봐 달라. 함께 참여해서 책을 고르고 싶다고 말했다.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권장도서 목록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고 희망을 얘기했다. 청소년이 책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 책을 읽을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문 문항을 만들기위해 기획회의를 4회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경쟁위주의 입시제도가 청소년들이 책을 못 읽게 하는 방해요소라고 말해서 안타까웠다.

이번 조사는 소도시의 보편적인 아이들 목소리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들은 돌래의 여러 독서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래야 잘한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계속되는 토론으로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특히 입시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겠다. 우리 사회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2020 청소년책이해네트워크 주최 5차 포럼으로 2020년 11월 28일 여주 시청에서 진행되었다.

학도넷 소식

2020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20년 9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가을호 발행(총권 52호)
- 2020년 10월 17일 학도넷 여름사서연수 2차 연기진행
- 2020년 10월 30일 2020 학도넷 여름사서연수 3차 연기진행

신입회원(2020년 9월~2020년 11월)

정회원 : 김대경 이은정
웹회원 : 박순영

회비 및 후원내역(2020년 9월~2020년 11월)

정회원 회비

- 매월 3천원 : 고은 김미영 김미향 김원형 김지순 남경화 박규리 박영혜 박정미 박정민 박종숙 박현주 신수인 신재희 오계화 윤정숙 염효경 이영인 이어나 이은옥 이인문 이재경 조성우 천천아 최선옥 최유미 함정희 황희진
- 매월 5천원 : 강경미 광정은 구미숙 권도경 김미숙 길영희 김경숙(보령) 김경진 김경하 김누리 김대경 김동현 김리라 김명선 김명화 김선영 김소은 김수현 김수영 김심환 김연옥 김영신 김유진 김윤주 김은승 김은영 김은하 김정숙 김정혜 김하나 남규조 마민희 문수지 문원림 박미영 박선미 박은하 박준섭 박현숙 박효정 변향희 백경숙 백연주 서미혜 서정원 선보배 성주영 성미경 송경영 송명연 송숙영 송윤서 송혜영 신영숙 신은미 신정임 신정화 신지연 안경애 안정원 안희정 양은주 유영숙 유정원 윤남미 윤소영 이금화 이규선 이남지 이미순 이선화 이수경 이영선 이유정 이은정 이은혜 이주영 이현 이현애 이혜진 임경순 임재연 임지은 장부자 정명하 정미순 정수연 정영희 정윤희 정은희 정해선 정혜련 주상태 진은진 차진미 채재현 최은규 하은경 한은미 허현주 홍용란 홍선희 황동옥 황순영 허지은
-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은수 권향미 김경숙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유 김정윤 김중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김태현 라순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혜 변영이 백화현 불어라봄바람 신행란 안미정 오현애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문숙 이민수 이소연 이영주 이재선 이찬미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최진영 한영숙 허경림 황봉희
- 매월 1만 5천원 : 김효숙
- 매월 2만 : 김순정 박은숙
-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매월 5만원 : 이루리

준회원 회비

- 매월 : 김민형(2천) 김승요(2천) 김승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제희(2천)

- 여름연수 후원 유은실 작가(10만)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시곳

이상, 몰래카메라였습니다(바람의 아이들)/ 황금글똥의 비밀(바람의 아이들)/ 마녀여도 괜찮아(바람의 아이들)/ 설악가 사라진 이유(별숲)/ 만물이(북극곰)/ 훈데르트바서의 집(계수나무)/ 여기는 쓰레기별 긴급구조 바람(우리학교)/ 새내기 노동인 그라디(철수와 영희)/ 우리 역사에 숨어있는 인권 존중의 씨앗(북vento)/ 인권, 여성의 눈으로 보다(철수와 영희)/ 우리가 사체를 줌은 이유(숲의 전설)/ 특종전쟁 2. 가짜뉴스를 파헤치다(별숲)/ 봉봉봉(북극곰)/ 어업의 품격(지성사)/ 새싹이 돋는 시간(한림출판사)/ 나도 될 수 있다! 과학 수사대(별숲)/ 나도 될 수 있다! 우주 비행사(별숲)/ 나도 될 수 있다! 만능 발명가(별숲)/ 나도 될 수 있다! 수학 박사(별숲)/ 나의 첫 질문책(있잖아, 궁금한 게 있어)(우리학교)/ 뉴노멀 교양수업(문예출판사)/ 내 안에 내가 있다(바람의 아이들)/ 반짝반짝 궁전 속 세계문화(가교출판)/ 환상의 짝꿍(북극곰)/ 달에 간 나팔꽃(글로연)/ 탐정클럽(가람어린이)/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자연과 생태)/ 선생님, 탈핵이 뭐예요?(철수와 영희)/ 선생님, 경제가 뭐예요?(철수와 영희)/ 즐거운 다문화 도서관(학교도서관저널)/ 수상한 운동장(북vento)/ 너의 우산(글라이더)/ 10대의 진로를 위한 디자인경제(글라이더)/ 어느 돌멩이

의 외침(철수와 영희)/ 회복적 생활교육(우리학교)/ 돌담집 그 이야기(계수나무)/ 아홉살 리더십 멘토(북vento)/ 다람쥐의 구름(북극곰)/ 산타에게 편지가 왔어요(북극곰)/ 완벽한 바나바(북극곰)/ 민주주의자들의 교실(민주시민교육의 철학)(마북)/ 민주주의자들의 교실(민주시민교육의 실천)(마북)/ 자연에서 노는 아이(고래벡속)/ 카리스마적 지배(문예출판사)/ 별똥의 비밀(별숲)/ 패션걸의 탄생(서유재)/ 우리반 베토벤(리를 씨앤북)/ 몸튼튼, 마음튼튼(계수나무)/ 나무모자(계수나무)/ 고마워요, 40년vol.1(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피어라, 어린이도서관연구회 vol. 2(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돌아온, 돌아와야 할 우리문화유산(지성사)/ 나 지금 뭐 하세요(북극곰)/ 이 동네는 처음이라(북극곰)/ 네 곁에 있어도 될까(북극곰)/ 우당탕탕 공룡이 온다(매직 싸이언스)/ 아슬아슬 바다탈출 대작전(매직 싸이언스)/ 으샤으샤 진격의 포유류(매직 싸이언스)/ 천리안, 하늘에서 바다를 연구하다(지성사)/ 시화호, 새살이 돋다(지성사)/ 진짜 내 소원(글로연)/ 산을 옮기는 아이(바람의 아이들)/ 선생님, 코로나19가 뭐예요?(철수와 영희)/ 모나코 나비(바람의 아이들)/ 산타할머니(바람의 아이들)/ 황제의 선택(바람의 아이들)/ 망토(계수나무)

저자지증 : 내가 혼자 있을 때(혜사곤) 저자 최은규 30권 기준
코스모스스쿨8 (고래가 숨쉬는도서관) 저자 안재희 30권 기준

소식지 보내주시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계간 고래가숨쉬는도서관/ 계간 우리교육/ 월간 개똥이네 놀이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소식지/ 월간 학교도서관저널/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동화읽는어른/ 마음이 된 도서관 이야기(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보내주시 소중하신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2020 학도넷 비대면 후원의 밤합니다

만나지 못하니 양분만 여쭙니다. 모두 무탈하십니까?
해마다 함께 모여 위로의 지기를 나누던 학도넷 후원의 밤을 올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온 힘을 다해 건네는 코로나, 함께 위로하고 동고동락주세요.

< 프로그램 >

반가운 얼굴 마주하며 눈신사, 덕담 나누고 답답한 한 해를 겪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봅니다.

고무신과 함께 놀이감 만들어 놀아봐요. (자연에서 노는 아이/고무신/고래벡속)
* 나팔이로 희망불기
* 바람중으로 날려버리는 코로나

마음을 밝히는 오카베라 연주 이정표(오카베라 앙상블)

때 :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 9시 온라인으로 진행

후원티켓 : 3만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

따뜻한 저녁을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감사우러미(그림책일터, 나팔이놀이감제조, 놀이책, 간식우러미)를 준비했습니다.
후원티켓을 구매입금하시고 문자로 주소를 남겨주시면 감사우러미와 참가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 : 학도넷 사무처 010-4723-0856 / 02-720-7259

학도넷 2020학년도 겨울방학 사서연수합니다

<작가와 함께 떠나는 자연놀이, 자연탐사>

학교도서관, 북적북적, 와글와글 아이들 재잘거림이 그리운 때입니다. 찾아들 것 같지 않은 긴 감염병 확산 상황에도 학교도서관에 활기찬 숨을 불어넣으려 분투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도서관이 봄날 햇살처럼 활짝 열리길 간절히 바라면서 선생님들의 새로운 충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학도넷 겨울연수를 열어 아이들과 몸으로 책으로 흥겹게 만날 준비를 합니다.

1. 자연에서 놀며 자연이 된 아이들, 작가와 함께 인간 근원을 일깨우는 자연놀이를 만납니다.
2. 비대면 시기, 비대면을 정의하고 활동구성을 위한 콘텐츠개발을 함께 합니다.
3. 가만가만 바라보면 세상이 모두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을 잘 들어내고 자연과 하나가 된 시민과학자와 함께 새들이 전하는 말을 만나러 갑니다.

강사 : 고무신_고무신학교 대표, 자연에서 노는 아이 저자(고래벡속)
저자 : 조병범_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 저자(자연과 생태)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때 : 2021년 1월 20일(수)~21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3일, 21시간)
- 곳 : 와글와글도서관(성산동), 고무신학교 파주 보리출판사, 돌곶이습지
- 대상 : 학생과 교사, 교실과 도서관을 풍부하게 연결하고 싶은 초중등 사서(교사), 도서관담당교사, 자원활동가 선착순 20명
- 읽어오기
-자연에서 노는 아이 : 고무신(고래벡속)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 : 조병범(자연과 생태)
- 문의 : 학도넷 사무처 02-720-7259

	1월 20일(수)	1월 21일(목)	1월 22일(금)
작가와 만남	고무신 자연에서 노는 아이(고래벡속)	고무신 자연에서 노는 아이(고래벡속)	조병범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 (자연과 생태)
주제	자연에서 놀며 자연이 된 아이들	비대면시기 활동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새
오전	자연에서 노는 아이, 천천히 살피며 내 어린시절 자연을 배운 놀이들 찾기	비대면을 정의하고 활동구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파주 돌곶이습지를 중심으로
점심			
오후	-자연에 담는 놀이감 만들어 놀아보기 -책놀이로 연결하기	-책이 가장 훌륭한 콘텐츠이다 -혼자 읽기, 함께 읽기 모두 풀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자랑하기	-현장 탐조 -파주 돌곶이습지
장소	와글와글도서관 고무신학교	와글와글도서관 고무신학교	파주 보리출판사 강당 돌곶이 습지 일대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